

섬 촌놈이어도 괜찮아

“또 만나자, 비진도~!”

나는 어른이 되면 비진도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다.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은 통영 한산도에서 배로 40분쯤 더 가면 도착하는 작은 섬 비진도이다. 5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인 엄마, 아빠를 따라 비진도로 갔는데 우리 가족들은 분교 옆에 있는 작은 사택에서 생활하였다.

5남매인 우리들 중 쌍둥이 누나 둘은 4학년, 형은 1학년에 입학했고, 나와 3살이었던 동생은 유치원 형이들을 따라서 온 섬을 누비고 뛰어다니면서 놀았다. 처음부터 섬에 살고 있는 학생은 두 명이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친구가 생겨서 참 좋다고 했다.

비진도는 8자 모양을 닮았고 주변에 더 작은 섬들이 종종히 떠 있는 곳이다. 8자 모양의 섬을 옆으로 누이면 육지 쪽을 향해 있는 쪽이 내향, 매물도 쪽을 향해 있는 쪽을 외향이라고 한다. 내향과 외향 사이에는 언덕이 있어서 걸어서 넘어가야 서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손가락이 8개인 것 같은 팔손이나무 군락지를 지나고 언덕에 올라 사방으로 푸르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면 귀여운 섬이 하나 보였는데 얼핏 보면 고래가 떠 있는 것도 같고 반대로 보면 거북이 같기도 해서 우리는 그 섬을 ‘거북섬이다!

고래섬이다!’ 하며 싸우기도 했다.

고갯길에는 계절마다 다른 먹을 것들도 많았다. 봄에는 울긋불긋한 산딸기가 덤불 사이사이마다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노란색을 띄는 달콤한 산딸기를 ‘호박 산딸기’라며 좋아했는데 육지로 나오고 나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 서운했다. 뱀딸기를 쓱쓱 피해서 골라먹는 것도 또 다른 놀이였다. 뽕나무에서는 오디를 따먹고 가을에는 잣밤과 은행을 주워 말려서 난로 위에 구워먹기도 했다. 은행을 주울 때는 “뽕냄새~” 하고 소리치며 피해다니곤 했지만 그것도 비진도에서는 귀한 간식이었다.

더운 여름날의 비진도에는 사람이 참 많았다. 모두 몽돌과 백사장이 양옆으로 펼쳐진 신기한 광경을 보고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섬을 찾아왔다. 바다는 관광객들에게는 그저 여름 수영장이었지만 우리에게 사계절 즐거운 놀이터였다. 바위에 붙은 홍합과 고둥을 잡고 미역도 땀다. 주말에는 낚싯대를 쥐고 고등어 낚시를 하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장어, 볼락 같은 다양한 바닷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다. 바다에서 노느라 얼굴이 새까매져서 이만 유독 하얗게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강아지들 새~까만기 섬 촌놈이 다 뻤네.”라고 마을 할머니들이 놀리시곤 했지만 나는 비진도가 너무 좋아서 섬 촌놈이라도 좋기만 했다.

비진도는 자연 환경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이다. 엄마, 아빠가 육지로 나가고 우리만 남아 있을 때는 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위험한 바닷가로 나가지는 않는지 밥은 챙겨 먹는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바람 불 때는 바닷가에 나가면 안 된데이!”

“할배랑 통발 걷으러 가볼래? 가자!”

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뿐이다.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섬에서 나오고 2년째 되는 해에 비진분교가 폐교되었다. ‘보석에 비할 만한 섬’이라는 뜻에 걸맞게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 비진도이지만 학교가 없으면 이제 젊은 사람은 절대로 섬에 살러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지낸 70~80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그 아름다운 비진도는 무인도가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부모님을 따라서 여러 곳을 바꾸어 살아보았지만 비진도는 유난히 잊히지 않는 곳이다. 경치도 아름답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다. 섬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부모님은 섬에 계시는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나는 비진도가 무인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진도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섬 비진도가 내가 어른이 되어도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박민상

밀양 밀성초등학교 5학년